

94년을 보내며

At The End of The Year

—「해방 반세기를 넘어가는 진통 속에 협회 30년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자」—

崔英集/종합건축사사무소 탐

by Choi, Young-Jip

■ 상황

해마다 이맘때쯤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유난히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1년의 시간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며 착잡한 감정을 갖게 된다. 올해는 더욱 말할 수 없는 참담함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세밀을 앓게 될 것 같다. 한국방문의 해, 서울 정도 600년의 해로 화려하게 광과례를 울리며 시작한 해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 해를 정말 멋있게 잘 살아냈구나 하는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텐데 가슴을 짓누르는 국내, 국제적인 상황은 그리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방후 어언 반세기를 지내는 동안 건국도 했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경제개발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치발전도 이룩했던 50년이였다. 이제 겨우 숨을 돌리며 변화와 개혁의 새 고삐를 틀어 잡고 국제화의 대열에 끼어 들려하나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 품었던 상처들이 봇물처럼 터져 미처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정세는 급변하는데 도무지 전열이 가다듬어지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공무원이 세금을 도둑질하고 학생은 공부를 안하고 근로자는 일을 안한다. 기업의 부도율은 높아가고 정부의 신뢰도는 그에 비례하여 땅에 떨어지고 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단편적 사건일지 모른다. 어디에선가 더 큰 문제들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들이 해방 50년의 고비를 넘겨 탄탄대로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적 계기로 승화될지 패배주의 냉소주의로 흘러 그나마 조금 비축했던 가능성마저 엿질러 버리는 한심한 좌절로 끝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세기말적 사회양상과 재편되는 세계질서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이며 반세기를 넘어가는 역사적 진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진통의 예고편들을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른다. 지금까지 모르고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길을 알고 달려나가야 한다.

내년이면 우리 건축사협회가 발족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도 시대적 상황이 그러하듯이 협회의

상황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하고 변혁이 일기도 하며 방향타없이 방황하기도 했던 매우 힘들었던 해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묵묵히 건축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기에 한 세대를 넘기는 성숙한 협회로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서로 핑계달 상황이 아니다. 사회적 여건이나 역사적 현실을 직시한다면 우리 협회도 보호주의적 정착기를 지나 계도적인 도약기로 접어들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전문가로서 시대적 사명을 공감하고 실천적 의지를 다져야 한다. 어려운 시대 성숙의 아픔을 분담하며 건축과 협회를 다시 이해하여야 한다. 국제화 물결 속에 선진한국으로 진입해야 할 건축적 책임을 누구도 대행할 수 없고 회피할 수도 없다. 올해 불협화음이기도 하였지만 많은 자탄과 비판의 소리들이 있었다. 개선안이라고 내어 놓은 여러 대안들이 문제의 해결책이 못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안일 수도 있지만 경청하고 이해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분명 발전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율되어 힘은 모아져야 하고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 나가야 한다. 어느 집단이라 하더라도 모두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은 목표가 같아야 하므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탈바꿈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상황의 이해 속에서만이 협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새해의 희망적 미래를 위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집행부의 탄생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 전환기의 협회를 끌고 나가야 할 책임을 지우는 무거운 마음에 걱정스럽기도 하다.

■ 반성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격을 위한 트집이기도 하며 또는 누워서 침뱉기식의 독백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비난과 공격을 분해하면 반성의 요인을 찾을 수 있을 터이니 한 해를 보내며 다시한번 음미해 보자.

첫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건축계의 위기는 건축사들과 건축사협회 문제로 인해 기인되며 협회는

문제해결의 구심체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장애요인이다.

둘째, 회원들의 과도한 기득권 보호로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며 구성원들 자체도 성향과 이해, 인식의 차이로 인해 화합될 수 없다.

셋째, 협회는 현실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분과적이며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건축계의 혁신이나 선도적 역할이 미약하다.

넷째, 사회적 인식이 저하되고 회원들로부터도 신뢰도를 잃고 있다.

다섯째, 자기발전 기능이 미약하여 시대적 변화를 감당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계속적 통제가 필요하거나 발전적 해체가 불가피하다.

대개 이런 내용들로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우리 협회 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역으로 수용하면 반성의 실마리와 제도 수정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계를 리드해 나가며 회원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전문가 집단이 듣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이지만 30년의 시행착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충언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방향

국면이 혼미스러울수록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리드해 나가야 한다. 부화뇌동하지 말고 장기적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움직여야 한다. 올해를 보내며 가슴아프게 반성도 하고 가슴을 치며 분개도 했다면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시한번 방향타를 틀어잡는 기회로 삼자.

그리고 새해를 맞으며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자.

건축사는 건축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주역으로서 건축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권위를 인정해 주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정적 화살받이로 이용되어서는 안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명실상부한 최고 전문집단이 되어야 한다

협회가 단지 등록건축사들의 이익집단이거나 친목단체가 아니라 당연히 건축계를 대변하는 최고의 실천적인 전문집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사와 협회는 실과 구슬이 되어야 한다

이기적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적 전문가로서 가치가 승화될 수 있도록 구슬과 실로서 서로 꿰어서 보배가 되어야 한다. 또는 실과 바늘로서 건축의 문제를 꿰매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대안

큰 줄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수립했으면 지엽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지속적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겠지만 우선 장기방향 목표추진을 위한 몇가지 대안들을 거론해 보자.

면허를 남발하지 말자

건축계 문제점들이 사회에 노출되자 일각에서 건축사 공급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예년에 비해 엄청난 면허가 남발되고 있다. 그 인력이 그 인력인데 면허를 주면 사람이 달라지고 실력이 늘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자격이나 면허가 사회적 공신력을 가지려면 그에 합당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도록 선별이 올바르게 하고 질이 동등해야 한다. 행정편의를 위해 공급이나 질이 왔다 갔다 해서 안된다. 면허가 균질하게 공급된다면 고질적인 협회의 병폐도 사라질 것이다.

입회의 폭을 넓히자

명실공히 최고의 전문가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소지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문제제기, 연구검토, 정보교환, 자료정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을 활성화 하자

현대는 다양성의 시대이고 협회 초창기와는 양상이 너무나 달라졌다. 건축사협회가 행정적 상황에 따라 연합회 성격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면 구성원의 성분에 따라 선택적 분화도 가능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종합적인 건축정보센터가 되자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건축정보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건축에 관한 국내의 모든 정보를 비축하고 제공하며 기술개발 품질관리 등의 업무도 지원할 수 있는 체제와 대사회적 서비스 업무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타 여러가지 실천적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뜻을 합하여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건축사와 협회가 어쩔 수 없이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크게는 우리 건축 문화창달을 위해 작게는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길만이 우리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또 한 해가 가고 있다.

새해에는 또 어떤 폭풍이 예기치 않게 불어 닥칠지 모른다. 키를 단단히 움켜쥐고 흔들림없이 노를 저어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명제들을 다시 적어보는 것은 내일의 희망, 협회의 30년, 대한민국의 50년 그 저력을 믿기 때문이다.